

# Art

아트인컬처  
February 2015

Special Feature /  
20세기 한국미술  
Key Word & Key Person  
전문가 23인 앙케트

Artist /  
박서보, 단색화의 거장

Report /  
DMZ 피스 프로젝트



INTERVIEW  
.....

# 박서보

1931년 경북 예천 출생. 홍익대 명예교수.  
1954년 홍익대 졸업. 1958년 현대미술협회  
창립. 1961년 파리 유네스코 청년대회  
참가. 1994년 서보미술재단 설립. 2011년  
은관문화훈장 수훈. 경기도미술관(2007),  
국제갤러리(2010), 부산시립미술관(2011),  
대구미술관(2012), 파리 페로탱갤러리(2014)  
등에서 개인전 개최.



## 단색화의 거장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굵직한 단색화 전시마다 빠지지 않는 주전 선수로 한국의 '색'과 '힘'을 동시에 알리고 있다. 특히 박서보는 지난 10월 유럽 굴지의 화랑인 파리 페로탱갤러리에 입성, 해외 아트피플에게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묘법>의 세계를 확고하게 각인시켰다. Art는 박서보를 두 차례에 걸쳐 만나, 단색화 열풍과 함께 화업 60년을 조망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20세기 한국미술의 전설은 21세기에 또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 호경윤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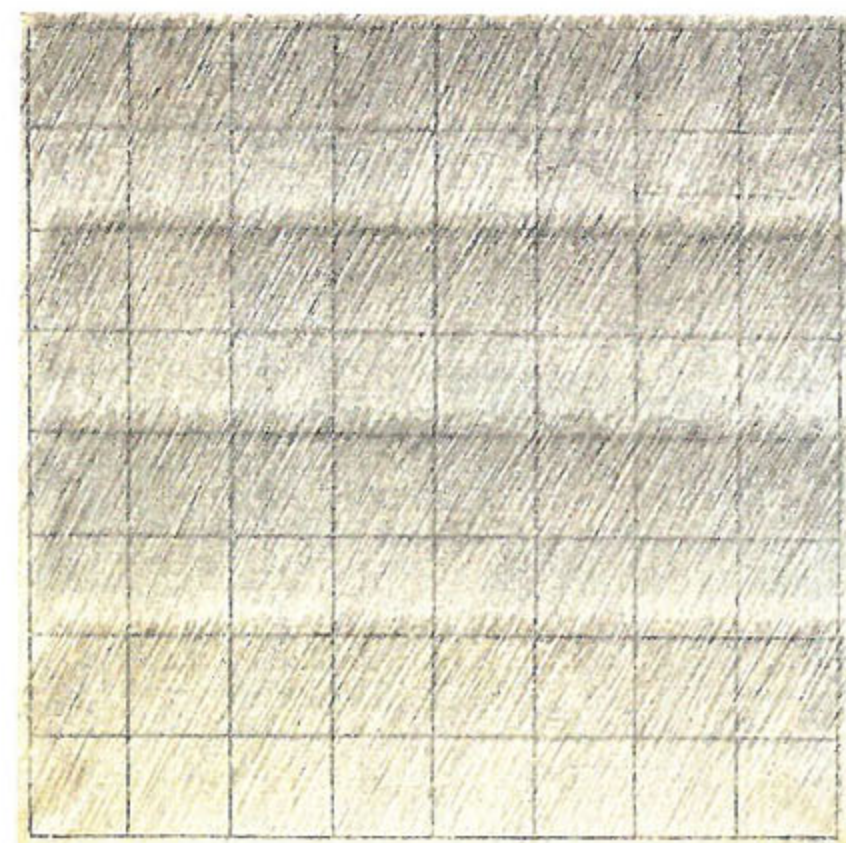


단색화 운동을 이끈 거장이자 한국미술의 살아 있는 전설인 박서보. 그러나 박서보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멀찌감치 떨어져 근엄하게 있는 여느 대가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일까. 주요 미술관 전시나 KIAF 같은 행사가 있으면 말끔한 수트를 차려 입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곤 하다. 인터뷰를 시작하려는데, 가장 최신형 모델의 아이폰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그런데 벨소리에서 박서보 선생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가시덤불길을 내가 다 스스로 선택해서 거길 걸은 거예요. 옛날에 하던 내 일 속에 내가 매몰되어 있다는 건, 즉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과거에 내가 성공한 거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변화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작년 가을 힙합가수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개코가 낸 솔로곡 〈과거는 갔고 미래는 몰라〉에서 인트로 부분에 박서보 선생의 강연 목소리를 샘플링해 사용했다고. 박서보 선생은 페이스북도 한다. 내 페이스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친구’다. 현재 박서보 선생의 친구는 4,945명이고, 그 중 나와 함께 아는 친구도 590명이다. 누구보다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박서보는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마스터’라 할 수 있다.

### 파리 메이저 화랑에 세계적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박서보는 지난해 11월 6일 파리 중심가 마레지구에 위치한 프랑스의 메이저화랑 페로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총 8개의 방으로 나뉜 전시장에 1970년대 ‘백색 묘법’부터 화려한 색채의 최근작까지 37점의 작품이 걸렸다. 오프닝에는 작가 이우환, 샘터화랑 대표 엄중구 등 한국 손님은 물론 피카소미술관장 로랑 르봉, 기메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피에르 캉봉 등 파리 미술계 인사까지 모여들어 대성황을 이뤘다. 그 당시의 기쁨이 여전히 전해졌다. “내 나이 83세 들어 비로소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거야. 내가 아는 어떤 작가가 내가 페로탱에서 전시한다니까 혹시 뒤로 돈 주고 했나 하더라구. 그런데 페로탱이 돈이 좀 많은 데야? 돈 준다고 전시 해 주겠냐고. 전시 오프닝 때 보통 60명만 초대하는데, 유명한 놈은 다 모였어. 메인테이블에 나하고 우리 마누라, 이우환하고 김용대가 앉았지. 김용대보고 이번에 전시 디스플레이를 책임 맡도록 하고, 크레딧에도 써 줬어. 한국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알려지는 게 좋잖아. 거긴 원래 아래층이나 위층 하나 밖에 못 쓴다 해서 처음엔 아래층에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작품을 갖다 놓으니까 모자라는 거야. 그랬더니 두 층 다 쓰라고 하더라고. 여태까지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팔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미술관 전시처럼 생각하라고 해서 400호니, 200호니 다 걸었지 뭐. 아마 크기가 국제갤러리 세 관 다 합친 정도로 어마어마해. 이우환 씨가 그러데. 작품이 아주 당당하고 품격 있고, 역시 최고라고. 갤러리에서도 아주 좋아했어. 팝아트 이후 평면은 갈 길을 잃었는데, 한국의 단색화가 평면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박서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지난 1월에 열렸던 아트페어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에 부스를 낸 페로탱갤러리는 전면에 박서보의 그림을 3점이나 걸었다. 페로탱갤러리는 올해 하반기 파리에 이어 뉴욕 분점에서도 박서보의 개인전을 열 계획을 잡고 있다. “어제 점심엔 신라호텔 일식집에서 페로탱갤러리 사람들이랑 사시미를 먹었어. 크리스마스라고. 개들이 그렇게 작가 관리를 잘해. 나는 전시 한 번에 벌써 페로탱 전속 작가가 됐잖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속 작가 명단이 나와. 앞에는 전시한 작가들, 그 다음에는 전속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 맨 뒤에는 전속 작가들이 있지. 나는 거기에 무라카미 다카시나 피에르 솔라주랑 같이 있지. 처음에 페로탱갤러리가 전시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한다고 했어. 난 거기가 그렇게 대단한 화랑인 줄 몰랐지.(웃음) 페로탱에 소속돼 있는 솔라주 있지. 내가 대학 졸업하고 솔라주 작품을 처음 봤거든. 1959년 《미술수첩》에서 보고 참 좋은 작가라고 생각했어. 김창열이랑 같이 팬이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같은 갤러리에 있는 거야. 예전에도 유럽의 메이저 화랑에서 개인전하자고 제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작품 가격을 반으로 낮추자는 거야. 할까 말까 아주 고민했었지. 여기저기 물어 봤는데, 다들 너무 자존심 상한다며 하지 말라더라구. 그래서 안했지.”



위 · 〈Ecriture(描法) No. 6-67〉 캔버스에 연필, 유채 64.8×64.8cm 1967\_〈묘법〉 시리즈의 첫 작품. 둘째 아들이 한글 쓰기 연습하며 연필로 쓰고 지우는 모습에 착안해 ‘연필 묘법’이 시작됐다.

아래 · 1961년 파리 유네스코 청년대회 참여차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박서보. 막상 파리에 도착하니 행사가 연기돼, 1년 여 가까이 파리에서 체류하면서 유럽 화단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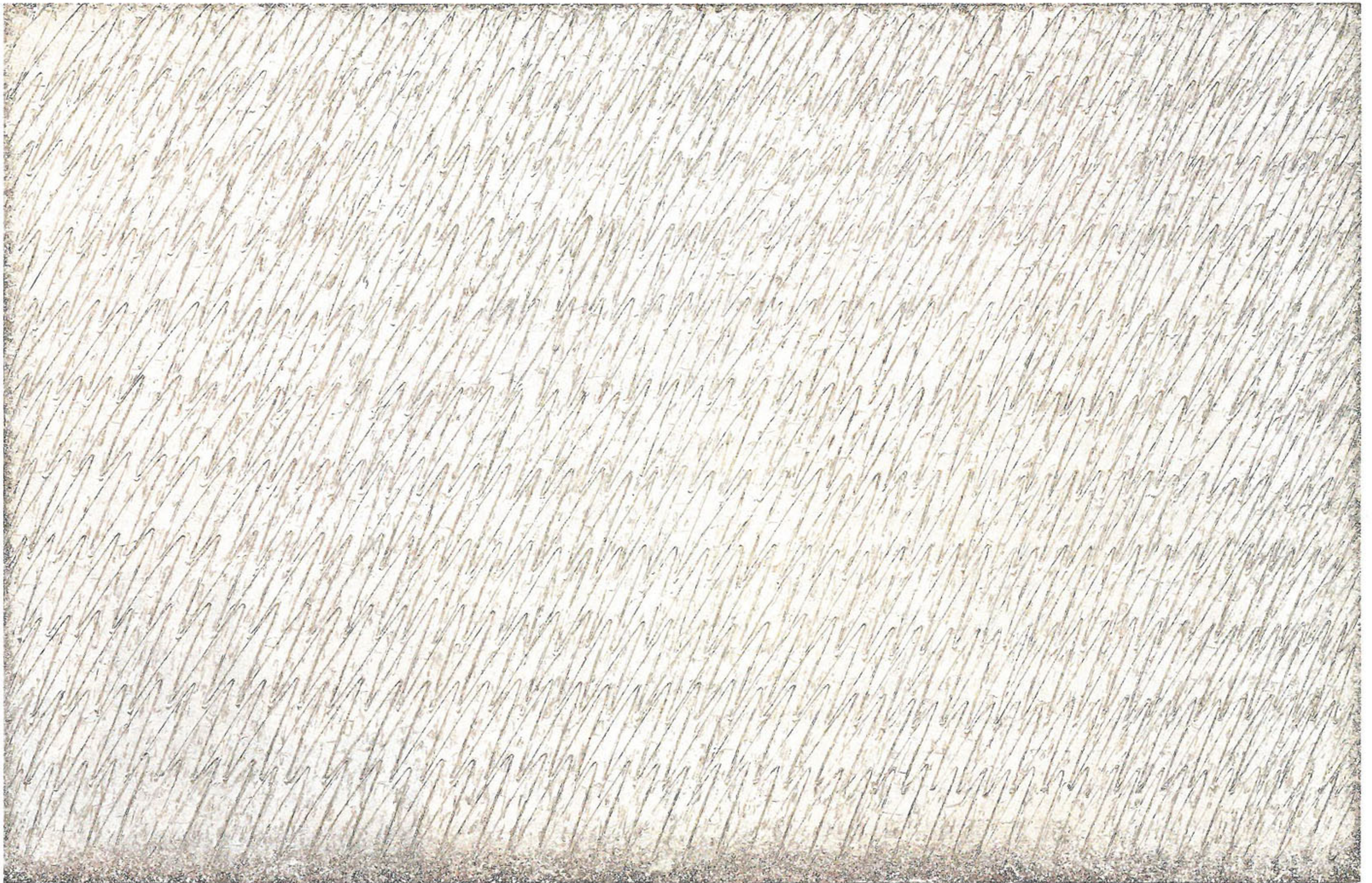




## 단색화 열풍, 미술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의 단색화>전(윤진섭 기획)이 열린 이후 최근 미술시장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색화 열풍이 일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박서보 외에도 갤러리현대 <정상화>전, 대구 우손갤러리 <하종현>전 등 단색화 1세대 작가의 개인전이 잇달아 열렸다. 또한 2월 알렉산더그레이어소시에이츠갤러리, 9월 국제갤러리, 11월 LA 블룸앤포갤러리, 12월 학교재갤러리 상하이 분관에서 단색화 기획전이 열린 바 있다. 단색화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명단은 보는 관점, 혹은 갤러리 전속 계약 문제 등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곤 하지만, 단색화 운동을 이끈 장본인으로서 박서보는 단색화 관련 전시에 빠지는 일이 없다. 박서보가 볼 때 단색화 인기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13년 국제갤러리가 프리즈아트페어 '마스터즈' 섹션에 열었던 단색화 전시와 미시간대 미술사학과 교수 조앤 기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출간한 단행본 《Contemporary Korean Art-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를 꼽는다. 조앤 기가 작년 11월 기획한 블룸앤포갤러리의 <모든 측면에서: 추상 속의 단색화>전에서 박서보는 천장이 10m가 되는 가장 높고 넓은 방에 작품을 넣었다.

국제갤러리는 프리즈 단색화 전시의 성공을 발판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단색화의 예술>전을 대규모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한국 3대 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리는 빅시즌에 맞춰, 세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냈다. 구겐하임미술관의 알렉산드라 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 듀오 샘 앤 킬, 홍콩 M+미술관의 정도련 등과





함께 컨퍼런스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박서보는 한국의 단색화만의 차별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끼리조차 단색화를 서구 미니멀리즘의 변형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태생부터 달라. 우리는 ‘무(無)’에서 출발한 거야. 서양의 현대미술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경향에 대한 이원론적 견해인 거지. 서양의 모노크롬은 다색주의의 상대적 개념에서 나온 거라서 완전 하얀색이나 완전 검정이지. 그런데 우리는 희끄무레하거나 거무스름하다는 거야. 희끄무레하다는 것은 도공들이 흙 밟아서 도자기 만들 때 일부러 유약을 발라 순도 100% 흰색이 아닌 자연스럽게 편안한 색을 만든 거랑 비슷한 거지. 또 온돌방에 장작불을 지피면 천장이랑 서까래가 거무스름해지잖아. 수십 년 시간이 흘러 그을음이 쌓이며 나타나는 거무스름한 색. 내 작품이 블랙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색이 나는 게 바로 그거야. 무한대로 들어가는 정신의 깊이가 있는 거지. 아, 그리고 파티 때 오쿠이 엔위저라는 친구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한테 따로 설명을 해 준 적도 없는데 한눈에 내 작품의 본질을 꿰뚫어 봐서 놀랐어. 구겐하임에서 이우환 전시를 맡았던 알렉산드라 먼로는 개인적으로도 작은 작품을 하나 사고 싶어 할 만큼 내 작품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구.”

〈단색화의 예술〉전이 끝난 후 구겐하임에서 박서보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작품 중 하나는 그가 최근 구입해서 이번 전시에 출품한 것이었다고.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돈 주고 샀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옛날에 안성 작업실에 불이 나서 300점 정도가 유실됐어. 1970년도 대작들이 그때 다 타버렸잖아. 동네 애들이 마약하다가 장난친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나한테는 옛날 작품 거의 없어. 그나마 몇 점 있는 건 나무독이 별걸게 올라와서... 옛날에는 큰 그림도 아주 싸게 팔았지. 그래서 어디선가 좋은 옛날 그림 발견하면 다른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사서 나중에 내 미술관에 넣으려고 해. 지금 100호가 바젤 같은 데서 27만 불에 팔리거든. 200호는 40만 불에 테이트미술관 후원하는 사람이 샀다더라구. 〈Ecriture(描法) No. 89-79-82-83〉은 사실 내가 나중에 내 미술관 차릴 때 넣으려고, 개인 소장가한테 팔았던 걸 요즘 시세로 몇 배나 더 주고 다시 샀던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안 팔려고 했는데, 해외의 중요한 미술관에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단색화의 인기는 옥션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올해 들어 첫 경매인 1월 28일 서울옥션에서 박서보, 정상화, 윤희근 등의 단색화 17점이 모두 낙찰되었다. 박서보의 경우 2012년 국내 옥션에서 거래된 작품이 9점이었으나, 2014년에는 46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경매에서 〈묘법 No. 47-74〉(37.7×45cm)가 추정가 400만 원의 약 18배에 달하는 7,296만 원에 팔렸다. “옥션에 나오는 작품들은 대부분 도둑맞은 작품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싸구려로 돌아다녀. 얼마 전에 옥션에서 연필 묘법 작은 게 추정가가 5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는지 알아?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양쪽 수수료 주면 한 2억 8천 가까이 되겠지. 그런데 옥션에서 아무리 잘 팔려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어. 얼마에 팔리든 난 관심 없어.”

이제는 세계적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한 미술사조로 떠오른 단색화. 그 태동이 궁금하다. 1950년에 홍익대에 입학해, 1950년대 중반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한 박서보는 1960년대까지 〈원형질〉 〈유전질〉 〈허상〉 등의 시리즈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묘법〉 시리즈, 즉 연필로 그리고 물감으로 지우는 행위의 반복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새로운 방법을 아무리 고민해 봐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1967년 어느 날엔가 둘째 아들이 한글 배운다고 깎두기 공책에 글씨 연습을 하고 있더라구. 틀렸다고 지우개로 지우다 종이가 찢어지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애쓰는 모습이 귀여워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 그걸 지켜보다 ‘이거구나!’ 했어. 네모 칸 안에 쓰려고 하는 건 목적성이고, 잘 안되니까 막 연필로 그어 버리는 건 체념이거든. 그걸 내가 흉내 내서 그린 그림이 첫 〈묘법〉 작품이야. 좋은 술이 되려면 오랜 숙성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후 계속 그리다 보니까 내 몸에 체화되면서 작품이 된 거지.”

사실 ‘단색화’라는 말이 통용된 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미술평론가 윤진섭은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 때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전을 기획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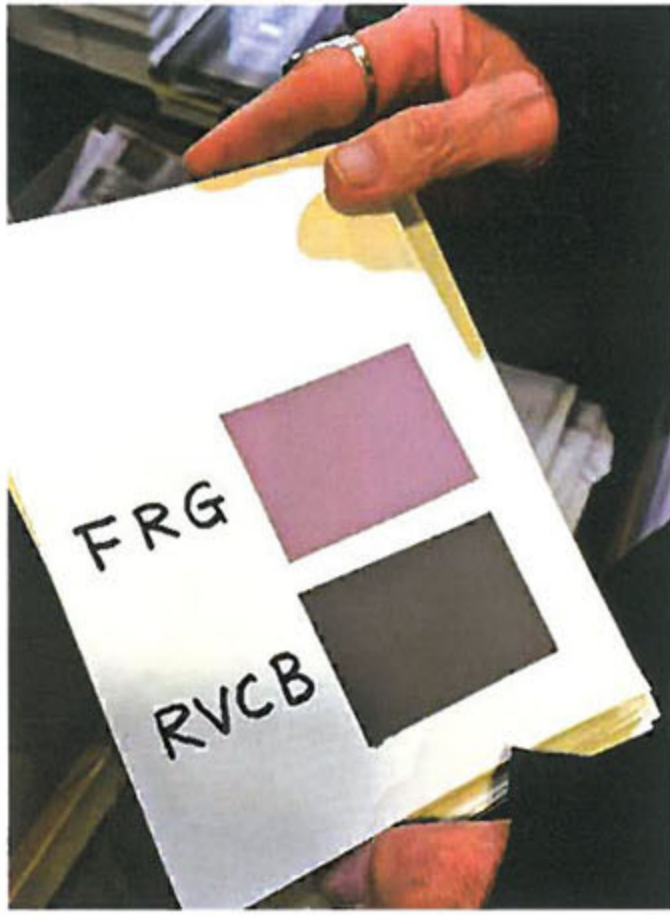


위 · 성산동에 위치한 작업실에 있는 작품과 노트. 박서보는 명확한 작품 분류 체계 아래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작품을 포함한 옆면과 노트에는 작품명과 사이즈, 제작연도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사용한 물감과 요철 모양을 간략히 적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다. 아래 · 2005년 조각가 박서원이 제작해 준 박서보의 두상.

왼쪽 페이지  
위 · LA 블럼앤포갤러리에서 열린 단색화 기획전 〈From All Sides: Tansaekhwa on Abstraction〉 중 박서보 섹션 전경  
아래 · 〈Ecriture(描法) No. 89-79-82-83〉 캔버스에 연필, 유채 194.5×300cm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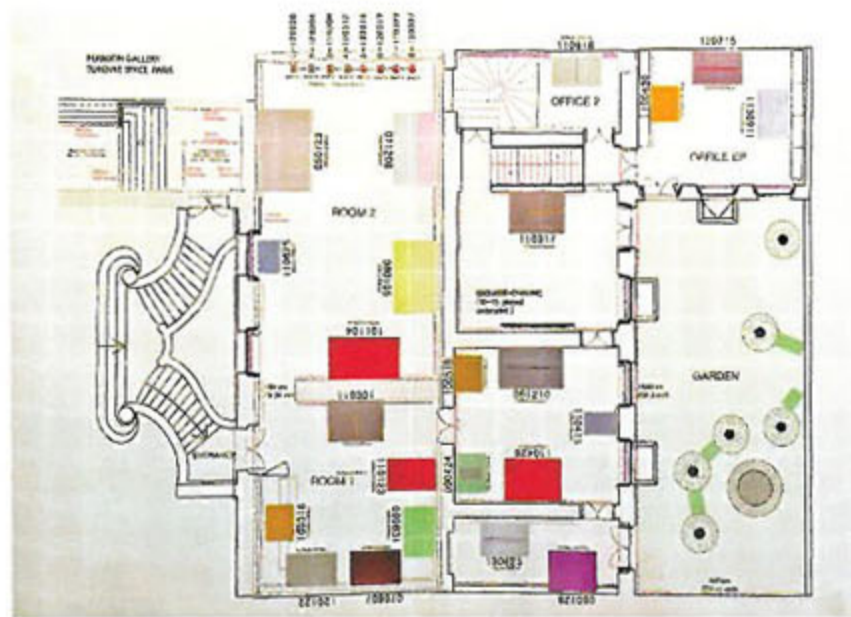


도록에 들어가는 영문 서문에 'Dansaekhwa'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회고한다. 아직도 우리 미술사에는 재평가되지 못한 여러 가지 동향과 개념들이 산재해 있지만 특히 편의에 따라 서양에서 마구 끌어다 쓴 용어들 덕분에 더욱 뒤죽박죽이다. "1950년대 후반 미술평론가 방근택이 내 그림을 보더니 앵포르멜이라고 해서 그땐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1980년대 후반 도널드 저드가 대학로 인공갤러리에서 개인전할 때 직접 만난 적이 있어. 그때 인공갤러리 대표 황현욱이랑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용우도 같이 있었는데 저드에게 나를 소개하길 '한국 최고의 미니멀리즘 작가'라고. 난 절대 아니다 했지. 저드도 사람들이 자기보고 미니멀이라고 하면 화가 난다고 하더라구. 평론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우리처럼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 눈에 미니멀은 순전히 논리뿐이거든. 오히려 내 그림은 자연과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게 요지야. 무목적성의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정신과 합일된 물성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내 그림은 수신 과정의 찌꺼기고 정신의 결정체'잖아. 오히려 내 그림은 서양의 대가보다는 문인화의 고수와 비슷한 점이 많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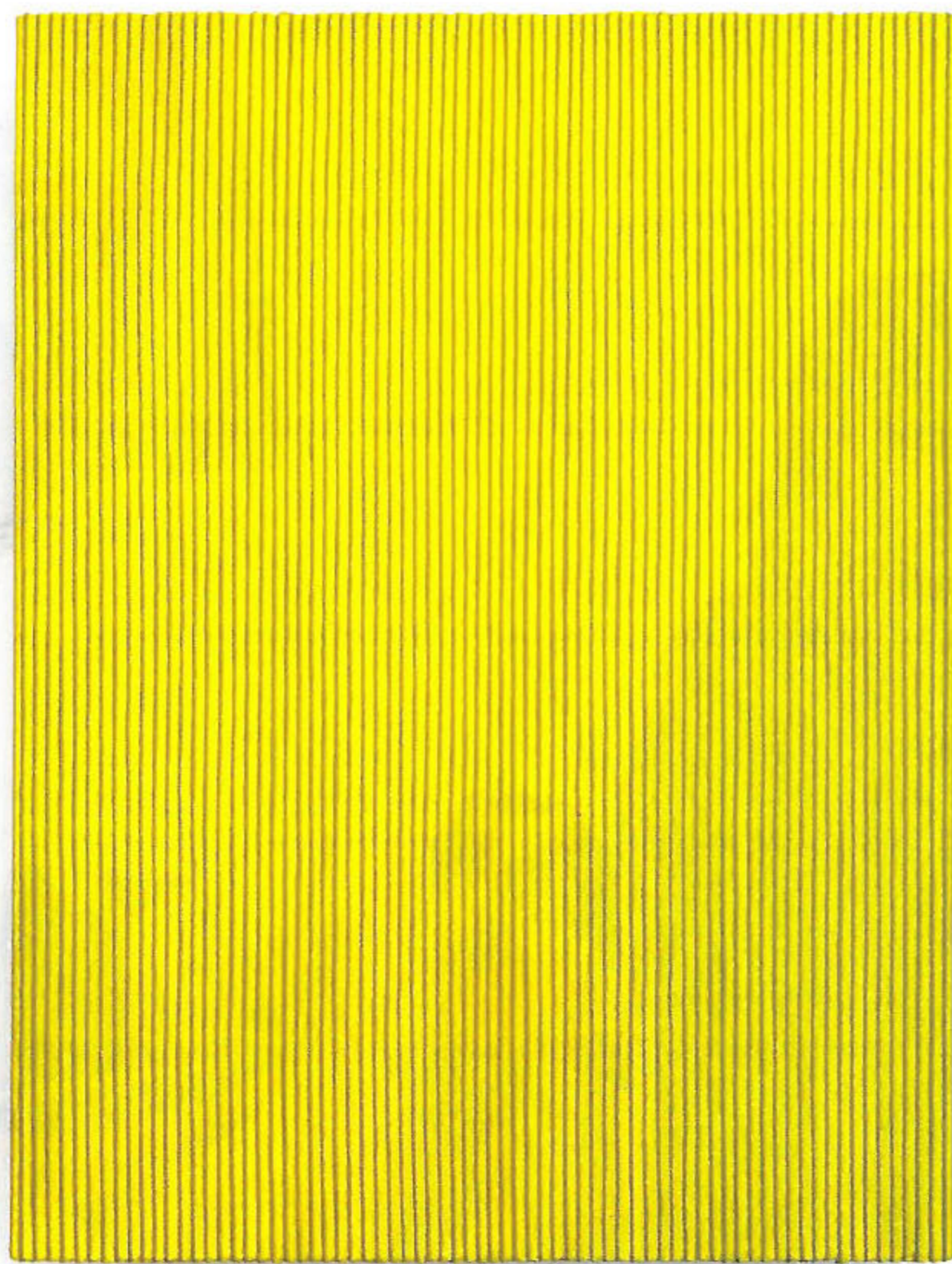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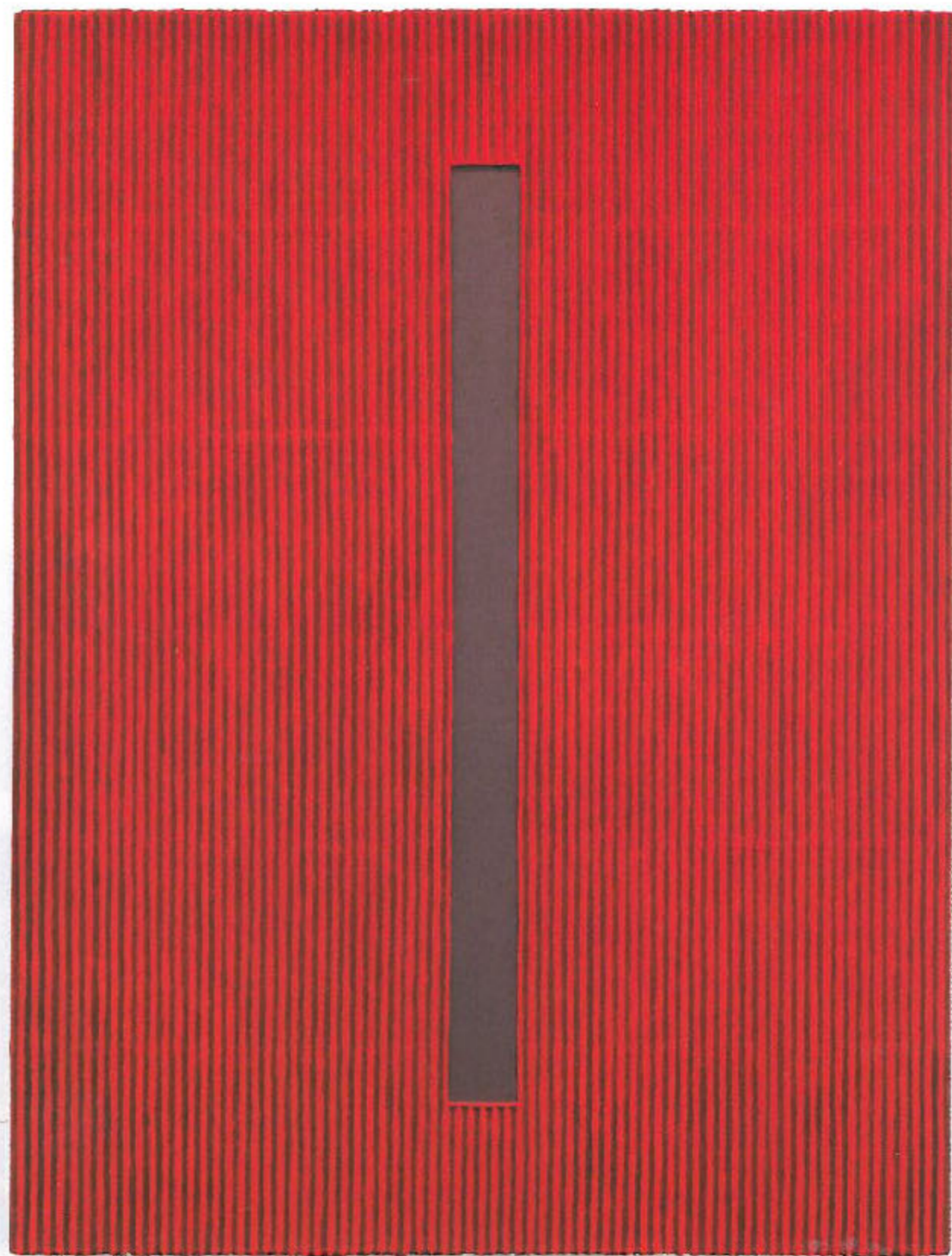
### 한국미술의 국제화에 앞장 선 화업 60년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 등 격동의 세월 속에서 그가 일궈 온 60여 년의 화업은 곧 한국 현대미술계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박서보가 처음 해외에 나간 것은 1961년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청년대회다. 직항이 없어서 일본을 거쳐 갔는데, 막상 파리에 도착하니 행사가 연기됐다. 덕분에 1년 정도 파리에 체류하면서 유럽의 화단 동향을 익힐 수 있었다. 틈틈이 현지에서 작업도 하고, 대학 때 스승인 고암 이응노의 캔버스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파리에 정착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청년대회가 끝나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신 박서보는 한국에서 해외 교류에 앞장섰다.

당시 《조선일보》가 1957년부터 〈현대작가초대미술전〉를 매년 개최했는데 1962년 전시에는 특별히 해외 작가들을 초청했다. 박서보는 그 전시야말로 한국미술 역사상 최초로 한국이 주체적으로 국제전을 연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조선일보 부사장 홍경인한테 해외 작가를 초청해야 한다고 설득했거든. 그래서 니들 바하, 오토 물 같은 작가가 전시할 수 있었지. '조선일보' 로고가 찍힌 종이에 내가 직접 작가들한테 편지를 써 주면 주최 측에서 대신 전보를 부쳐 줬지. 몇 년 전 《조선일보》 팍아람 기자가 논문으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대해 쓰다가 이상하게 1962년 전시를 추진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물어 왔어. 그래서 내가 당시 참여 작가이자 내 친구인 아돌프 브로네가 간직하던 전보를 스캔해서 전해 줬지. 그 전보는 김승덕이 비엔나에서 했던 전시 〈엘라스틱 터부〉 도록에도 실려 있어. 그 전시가 열리던 2007년 2월에 오프닝에 가려다가 안 갔어. 유럽 가는 김에 아돌프 브로네나 만나고 오려고 했던 건데 몇 달 전에 까만 테가 둘러 편지가 왔더라구. 설마 했는데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읽어 달라 했더니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야. 서글퍼서 안 갔어. 내가 좀 건강하니까 그 녀석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1988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이탈리아관에서 전시를 했던 박서보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말한다. "당시 비엔날레의 총 책임자 지오바니가 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 베니스에 가기 전에 서울올림픽 위원장이었던 박세직에게 건네받은 올림픽 기념 시계 5개 중 하나를 지오바니에게 선물로 주면서 한국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도와 달라고 했어. 우리나라 모든 국제전이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박서보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점은 해외에 유학하거나 이주하지 않고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1963년 파리청년비엔날레, 1965/75년 상파울루비엔날레, 1969/77년 카뉴국제회화전 등 해외 전시 활동에 열을 올렸다. "프랑스 문화부장관을 지냈던 앙드레 말로가 1963년 파리비엔날레에서 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대. 프랑스 화가들은 죄다 기교만 부리는데, 내 그림에는 '스피릿'이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기’에는 뜻이 두 가지 뜻(氣/技)이 있잖아. 당시 《UP통신》에 보도된 게 한국 일간지에도 나왔어.”

박서보와 인터뷰하는 동안 거론된 이름들만으로도 국내외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초고속으로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다. 창작 전반은 물론 홍익대 미대 학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주요 미술관 자문 등을 역임하며 미술 동네 어느 곳도 박서보의 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나 한국 아트씬의 요즘 모양새가 모두 다 마땅찮은 듯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해 물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데야. 예전에 권옥연 선생이 생전에 예술원 들어와야 할 사람은 딱 세 사람 있다, 박서보 김홍수 서세옥이라고. 그 중 둘은 들어갔지만 난 안 들어가. 만약 내가 들어가면 자리 배치부터 다시 하라고 할 거야.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계속 거부하니깐 몇 년 전엔 예술원 상만이라도 타라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예술원 같은 데에서 주는 상을 왜 받느냐 했더니 결국 한묵 선생이 타러 들어오더라고.” 성산동 작업실 ‘서보파운데이션’은 현재 공사 중이다. 건축가 이현재가 설계해 1995년 오픈, 그 후 20여 년 동안 수많은 작품이 태어난 이곳을 복층으로 만드는 대공사다. 개조하는 이유는 작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다. 지금도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작업을 하며, 늘어난 공간을 새로운 작품으로 채워 나가려 한다. 박서보는 올해 조현화랑과 노화랑 등에서 열릴 국내 전시와 베니스와 뉴욕 등지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베니스 전시 때는 부인 윤명숙 여사와 피렌체 여행을 계획 중이다. “21세기는 스트레스 병동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림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을 치유해 줘야 한다”며 여든다섯의 노화가는 자신보다 시대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고 있었다.

파리 페로탱갤러리 개인전 전경

왼쪽 페이지 위부터  
박서보는 작품 제작 때 사용했던 물감으로 색상  
견본을 만들어 놓는다.  
페로탱갤러리 전시 준비를 위해 제작한  
작품 배치 평면도  
〈아트스테이지싱가포르〉(1. 22~25) 중에서  
페로탱갤러리 부스 전면에 설치된 박서보 작품